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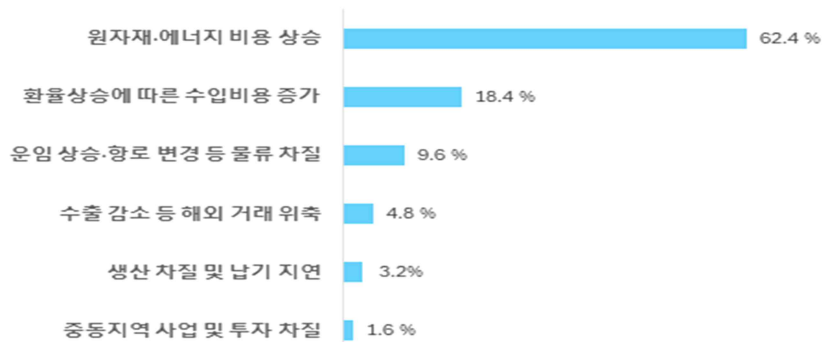
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	보 도 자 료		기업에게 사랑을 도민에게 행복을
	배포일시	2026. 4. 10(금) 총 2 매	
담당 부서 기획조사팀	담당자	· 팀장 고 상 진 · ☎ (063)280-1121~3, FAX 280-1129	
보 도 일 시	2026년 4월 10일(금) 석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전북 제조업 77.9% “중동 리스크로 경영 타격”

- 고유가·물류비 급등으로 수익성 악화 직격탄...경영 안정자금 및 수출애로 해소 총력

- 전북지역 제조업체가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, 환율 변동, 물류비 증가 등 복합적인 비용 상승 요인으로 경영 부담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(회장 김정태)가 도내 제조업체 1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「중동 사태에 따른 전북지역 제조업 영향 조사」 결과, 응답 기업의 77.9%가 ‘현재 경영에 영향을 받고 있다’고 응답했다. 이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순히 외부 요인을 넘어 지역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.
- 지역 기업들은 중동 사태의 주요 영향으로 ‘원자재·에너지 가격 상승’ (41.0%)을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았으며, 이어 ‘환율 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’ (20.7%), ‘해상 운임 및 물류비 상승’ (18.1%), ‘원자재·부품 수급 불안’ (12.4%) 순으로 나타났다.
-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, 글로벌 물류 차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업 경영 전반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.

【 중동 사태 장기화 시 예상되는 주요 경영 피해 】



-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들은 ‘원자재·에너지 비용 상승’ (62.4%)을 가장 큰 경영 부담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, 이어 ‘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비용 증가’ (18.4%), ‘운임 상승·항로 변경 등 물류 차질’ (9.6%), ‘수출 감소 등 해외 거래 위축’ (4.8%) 순으로 나타났다.
- 업종별로는 대부분 업종에서 ‘원자재·에너지 비용 상승’이 핵심 부담 요인으로 나타난 가운데, 자동차부품(83.4%)을 비롯해 금속기계(66.7%), 전기전자(66.7%), 바이오농식품(60.6%), 화학(52.4%), 섬유 의복(50.0%) 등 주요 업종 전반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.
- 이러한 영향은 특정 업종이나 일부 수출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북 제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,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 특성상 대외 환경 변화가 생산비용에 직접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.
- 실제 설문에 참여한 A사 관계자는 “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제조 원가는 오르는데, 해상 경로 우회로 물류비까지 치솟아 수출하면 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”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.
- 김정태 전북상협 회장은 “중동 정세 불안이 원가, 환율, 물류 등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쳐 기업들은 비상 경영에 돌입하였다”며 “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영 안정자금과 물류비·보험료 지원 등 수출 비용 부담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”고 밝혔다.
- 이어 “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, 수입선 대체, 수출시장 다변화와 함께 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, 이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”고 강조했다.